

대한양계협회소식



2006 전국 종계·부화인대회 성료 체계적인 종계DB구축으로 산업안정화에 적극 동참



양계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본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연중)는 지난 7~8일 양일간에 걸쳐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006 전국 종계·부화인대회'를 개최했다.

최준구 회장, 이연중 부회장을 비롯한 종계인 및 관련기관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25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으며 종계DB구축과 가금티푸스 등 양계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종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자리에 모인 종계·부화인들은 △종계부화업의 주인 의식과 생업사수, △종계DB구축 적극 동참, △고품질 병아리 생산, △철저한 소독과 자율방역의식 고취, △백세미 제도권내 생산과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

△가금티푸스 청정화를 위한 위생방역대책 제시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종계부화업계가 당면한 주요 현안으로 '양계산업 정책방향', '종계DB구축 사업의 필요성과 종계부화산업 발전방향', '종계장위생방역관리', '종계의 생산성 향상방안'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 졌다.

이연중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계·부화업을 경영하는 우리 종계·부화인의 단합된 모습과 소명의식이 바탕되어야 한다. 본 대회를 통해 협회와 종계부화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라고 전했다.(관련기사 86페이지)

농업인의 날 본회 "양계산물 우수성" 홍보 행사



본회는 지난 10~12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제 11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도시민과 농업인들이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농촌사랑

한마당 큰잔치'에 참가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양계산업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이날 대한양계협회는 임의산란계자조금으로 거출된 자조금으로 '영양만점 행복가득 계란요리 10선'의 요리책자를 제작하여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책자에 실린 계란삼색말이, 계란마들렌, 계란초잡채 등 가정에서 계란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10가지 요리를 선보였다. 또한 닭고기와 계란으로 만든 요리를 이용한 시식회를 열어 많은 시민들의 이목을 끄는 행사로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이번 시식행사는 배운자 요리학원에 의뢰해 이루어졌다.

**종계 Data-Base 추진협의회
표준 산란율 대비 월평균 10% 산란율 저하**



지난 10월 27일 본회 회의실에서는 2006년도 2차 종계 Data-Base 추진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육용종계는 2005년 6월~2006년 9월까지 7,255천수가 입식되어 전년동기간 대비 6.97%가 증가되었다. 하지만, 입식한 계군 중 2005년 10월 계군이 2006년 5월 산란율 평균 80%를 기록하였고, 나머지 계군은 산란율 70%선을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종계 생산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 폭염으로 10월 표준산란율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란종계는 2005년 6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지 입식된 계군이 평균 64~89%의 산란율을 보여 표준성적과 비슷한 양상을 띄지만, 산란종계 수입업체의 종계수입지연과 노계로 인한 산란율과 배부율의 저하로 산란실용계 수급의 불안정이 지속될 전망임을 보고하였다.

자료는 당초 목적대로 종계수급현황 파악을 통해 양계산물 수급예측과 수급조절사업 등 정책추진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산란종계 대표자회의 개최
2007년 종계쿼터 41만2천수 전년 기준으로 동결**



산란종계 대표자회의가 지난 22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양부회장 등 전국의 6개 부회장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2007년도 산란종계 수급조절협약과 산란계자조금 거출기관 지정문제가 논의되었다.

2007년도 산란종계 수급조절에 대해서는 6개 부회장이 채란업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쿼터량 기준보다 낮은 41만2천수(한양, 인주, 조인 각각 108,000수, 봉산 38,000수, 신진 30,000수, 성진 20,000수)로 지켜나가기로 하였다. 단 2007년도에 신규업체에서 병아리가 추가로 수입될 경우 쿼터제를 지속시키기는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채란분과위원회에서 부회장에 요구한 종계 70주령 준수에 대해서는 제안

을 100%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였다. 부회장들은 쿼터제가 앞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년 12월 8일 모 업체에서 수입예정인 병아리(2만수)에 대해서 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제제를 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내년에도 신규 물량 수입 등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가 필요함을 강력히 강조하였다.

한편, 산란계의무자조금 거출기관을 부회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회장의 생리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추후 채란분과위원회에 이를 통보한 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본회 의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상황근무 돌입

본회는 지난 23일 전북 익산의 한 종계장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닭들이 집단 폐사(13천수중 6천수 폐사)한 것과 관련해 전 직원이 상황근무 체제에 돌입하였다.

본회는 SI 진성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SI 종식 선언까지 본회에 마련된 상황실에 대기하면서 질병상황 파악은 물론 정부와의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SI 확산에 적극 대처기로 하였다.

또한 SI 비상대책본부를 더욱 강화해 대외협력팀, 소비대책팀, 수급조절팀을 편성해 SI 발생현황 예측은 물론 농가홍보, 소비촉진, 수매비축 등 SI 발생 이후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기로 했다. SI 비상대책본부는 회원들로 구성된 각 도지회 지부를 채널로 한 신속한 신고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의심축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추가확산을 조기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채란분과위원회 산란계 100주령제 적극 홍보키로



지난 6일 본회의회의실에서 11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선웅)가 개최되었다. 지난여름 HPAI 여파로 산란종계 수입이 중단되는 사태로 인해 경제주령 100주령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산란실용계 경제주령 100주령제를 회원농가들에게 재 홍보키로 결의하였으며 산란부회장에서도 종계의 사육주령을 70주령으로 지켜줄 것을 재요청기로 했다.

산란계 자조금은 지금까지 임의자조금 추진사항이 부진한 점을 쇄신하고 발전시키도록 자조금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기로 했으며 22일에 열리는 산란종계부화인 모임에서 부회장을 통한 자조금 거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일부 관련업체에서 농가에 제공하고 있는 전망 및 불확실한 비공식 정보의 유통으로 업계에 혼선이 생기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제재요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육계분과위원회 육계 의무자조금 사업 지연되지 않기를

지난 15일 본회 회의실에서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재성)가 개최되었다. 2007년도 5월 생산잠재력은 50,808천수로 전년 동월 대비



2.2%가 감소하고, 2006년도 11월 생산잠재력은 43,115천수로 전년 동월 대비 8.0%가 증가로 생산잠재력이 높아 12월 육계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1일에 진행될 육계의무자조금 대의원회 개최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연되지 않길 바라면서 지역적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지만 합의점을 찾아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이흥재 의장의 언급이 있었다.

중계부화분과위원회와 육계분과위원회간에 병아리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어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자는 의미에서 병아리협의체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구성건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난 8월부터 논란이된 소규모 육계농가에 위촉감을 주는 (주)하림의 직영농장 (유)홍림의 설립 건에 대해 정읍지역 양계인들은 정읍시청 앞에서 29일 항의 집회를 갖을 예정으로 각 지부에서 지원요청에 협조키로 하였다.

임직원 러브미 국제마라톤대회 참가 양계산물 우수성 홍보 함께 펼쳐

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 직원들은 지난 10월 29일 러브미 국제마라톤대회 축제에 참석해 양계산물 우수성 홍보행사를 펼쳤다.



이날 마라톤 대회에는 양계협회 직원 6명이 참석해 하프, 10km, 5km에 각각 도전해 완주를 했으며, 행사에 앞서 '알먹고 키자랑, 닭먹고 힘자랑' 이란 프랭카드를 들고 마라톤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쌀밥과 함께 잘 어울리는 반찬은 역시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과 닭고기'임을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진 축산연구소 축산자원개발부장이 소비홍보행사에 함께 동참하면서 뜻을 같이했다. 이날 하프에는 김동진 홍보팀장이, 10km에는 조종수 업무지원팀장과 기영훈 홍보팀원, 5km에는 공혜경(자조금사업팀), 장성영(홍보팀), 이남희(자조금사업팀) 사원이 각각 참가하여 완주하였다.

본회 · 경기채란지부연합회 소시모에 계란 1만5천개 전달, 안전식품 홍보



본회에서는 지난 10일(금) 경기채란지부연합회(회장 오세을) 협조를 받아 계란의 안전성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

모에 계란 1만5천개를 전달하였다.

이날 전달식에 생산자를 대표하여 참석한 경기 채란지부연합회 이덕선 사무국장은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소시모측에 채란 농가들이 안전하게 생산한 계란을 전달하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임을 적극 알렸으며, 더불어 계란 생산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를 공감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본회에서 소시모 측으로 전달한 1만5천개의 계란은 참사랑 소망원 외 5개 복지관으로 전달되어, 불우이웃을 위해 쓰여져 훈훈한 정 또한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육계자조활동자금 대의원회 관리위원 및 감사 위촉(안) 부결



지난 21일 ‘육계자조활동자금 설치를 위한 대의원회’가 안성 소재 농협연수원에서 선출된 대의원 총 135명중 72명이 참석,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자리에서 ‘관리위원 및 감사 위촉(안)’이 찬성 36표 대 반대 36표, 동수를 이루면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위촉 안이 부결되었다.

여러 뜻있는 육계인들이 나무가 아닌 산을 보는 자세로 시급한 육계의무자조금을 성사시키자는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아직까

지 일부 대의원들은 생산자 단체 자격, 관리위원 수 및 지역할당비율 등 오랫동안 반복됐던 내용들을 또 다시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규명없이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기도 하였다.

이번 부결로 준비위원회는 관리위원 및 위촉명단(안)을 협의·추천해 대의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 숙제를 남기게 되었다.

지부 · 지회 소식

고양지부 고양 2006 농축산물 전통음식 한마당 축제 참가



본회 고양시지부(지부장 남상길)는 지난 10월 27~28일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 광장에서 제4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고양 2006 농수산물 전통음식 한마당 축제’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닭고기 시식회 행사를 펼치는 등 ‘닭고기 우수성 홍보행사’를 펼쳤다.

남상길 고양시지부장은 “이번 행사에는 1,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시식을 할 수 있는 닭고기를 준비해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닭고기 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소비촉진을 기할 수 있기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산

물 시식회 행사 외에 농산물 전시 및 품평회, 율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 이벤트, 전통가락공연, 전통문화 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닭고기 시식회 행사에는 남상길 지부장은 물론 민군홍 본회 이사 및 회원들이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부산경남도지회

양계인과 관련업체 한마당 축제



양계인과 관련업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부산경남도지회(지회장 황수연)는 회원간의 유대강화와 지역 관련업체와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 27일 김해시 진례 소재의 금호가든에서 '양계인 및 관련업체간의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날 한마당 축제에서는 150여명의 양계인과 관련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지부별, 종별, 업체 등으로 팀을 나누어 합동 계란 나르기 릴레이, 한마음 공차기, 지구를 굴러라, 밀가루 엮 먹기, 노래자랑대회 등의 게임을 즐기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푸짐한 상품으로 즐거움을 더했다.

황수연 지회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한마당 축제를 통해 양계인과 관련업체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협회를 구심점으로 양계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전하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고성육계지부

박용삼 지부장, 조합장 취임

박용삼 고성육계지부장이 조합장에 당선되었다. 지난 15일 경남고성농업협동조합장 취임식을 가지며 조합장으로써 활동을 시작했다. 박용삼 지부장은 지난 1998년부터 8년 동안 지부를 이끌어 오면서 양계산업은 물론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 박용삼 조합장

회장동정



◀ 최준구 회장

- 11. 1 등급계란 정보서비스 시행 시연회
- 11. 3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 11. 3 11월 편집위원회
- 11. 6 11월 채란분과위원회
- 11. 7 2006 전국종계부화인대회
- 11. 10 2006 한국가금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 11. 10 제11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 11. 13~19 축산박람회 추진을 위한 해외박람회 시찰
- 11. 21 육계의무자조금 임시 대의원회
- 11. 21 농림부장관주재 간담회
- 11. 22 농대위 전체 대표자회의
- 11. 22 산란종계대표자 회의
- 11. 22 한-미 FTA저지 비대위 관련 대표자 기자회견